

'마왕'으로 연극하기

제목: 마왕  
 예상 소요 시간: 20분  
 등장인물: 마왕, 아들, 아버지  
 스태프: 조명, 음향, 무대감독, 연출

[시놉시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늦은 밤, 열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안은 아버지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다. 이때 마왕이 나타나서 어린 아들을 데려가려 하자 아들은 무서워 떨며 헛소리를 한다. 무서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말을 달려 집에 이르렀지만,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장면〉 어두운 밤의 숲

# 아버지와 아들은 무대의 오른쪽 앞쪽에서 등장한다.(말은 빗자루나 대걸레를 활용) 아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진다.(아들의 행동에 맞춰 음악이 5초 나오고 아들이 말할 때 멈춘다.)

아들: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불안해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야, 무엇 때문에 떠느냐?

아들: 아버지, 마왕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 마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온통 안개밖에 없는걸.

# 마왕이 무대 왼쪽에서 등장한다. 마왕의 조명과 아버지, 아이의 조명이 대조를 이루게 한다.(예: 빨간색과 파란색) 마왕이 등장해 대사하는 부분에서 음악이 나오고 아들이 대사의 시작과 맞추어 서서히 작아지며 끝난다.

마왕: 얘야, 나하고 같이 가자꾸나. 나랑 같이 놀면 아주 재미있단다.

아들: (몸서리치며) 아버지, 들리지 않으세요? 마왕이 제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진정해라 얘야. 저건 바람 소리란다.

# 다시 마왕이 대사한다. 이번에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죽음으로 몰아붙인다. 아들의 대사가 끝남과 동시에 암전을 하여 10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암전은 아들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아버지가 불안한 상황을 느끼고 서둘러 집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왕: 얘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 주변에는 예쁜 딸들도 있고 너랑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를 거야.

아들: (더욱 몸서리치며, 목소리는 고조되어) 아버지, 아버지, 저기 마왕의 딸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 아들이야, 저건 나무들이 잿빛으로 변뜩거리는 거란다.

마왕: 난 네가 좋단다. 너를 폭력을 써서라도 데려가겠다.

아들: 아버지, 마왕이 나를 붙잡아요. 나를 아프게 해요!  
 (마왕과 아들은 거리감을 유지하지만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게 한다. 마왕은 아들을 유혹할 때는 서서 연기하고 춤을 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의 동작을 취해 관객에게 보여주며 말투는 부드럽게 한다. 아들은 마왕과는 반대로 행동에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 환영을 보는 것 같은 공포감에 질린 행동을 한다. 관객들은 아들의 행동에서 목적을 찾을 수 없지만 죽음으로 인해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 아버지는 집에 쏠살같이 달려온다. 암전의 시간은 아버지가 서둘러 말을 몰고 집에 오는 속도에도 비례한다. 암전이 끝나면 무대 한가운데서 아들은 쓰러져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울고 있다.

아버지: 아들이야, 아들이!

(아버지의 통곡과 함께 극은 끝난다. 이 극에서는 마왕이 직접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통하여 확신하게 된다. 이렇듯 대사와 행동을 적절히 맞물려 극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